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2006



희망변론프로젝트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Public interest lawyers' group GONG-GAM

희망을 그리는 길, 변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공감이 함께 합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국내 최초로,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익활동을 본업으로 삼은
공익변호사들의 모임 (non-profit public interest lawyers' group) 입니다.
공감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구체적 인권을 보장하고,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 인권의 경계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실천이 '공익법활동'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되어
'법'을 인권 보장과 사회 변화를 위한 열린 도구로서 기능하게 하는
다양한 흐름들이 효과적으로 모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차례 |

프롤로그 03 공감의 지향 mission statement 04 공감에서 하는 일 05
공감의 활동영역 19 함께 나누고 싶은 공감이야기 38 공감 주요 활동보고 40
언론에 비친 공감 49 희망을 그리는 사람들 56 공감에 대해 궁금했던 몇가지 58
후원안내 61 에필로그 62 한 눈에 보는 공감 살림 64



소수자 인권보장 및 인권의 경계확장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구체적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환경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우리사회 인권의 경계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변화를 지향하는 법적 실천

우리사회의 적극적인 변화가 모색되는 다양한 지점에서
법률전문가로서의 가능한 실천들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공익법활동의 활성화

'법'을 인권보장과 사회변화를 위한 열린 도구로
가능하게 하는 실천들이 '공익법활동'으로 공유되고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공감에서 하는 일



공익단체법률지원

단체활동가 법률교육 및 법률매뉴얼

함께하는 공익소송

공익법 관련 제도개선 및 연구

공익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중개



공익단체법률지원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정보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리이며 소리는
앞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가야 한다.” _신영복

공감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옹호와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단체에 변호사를 파견하여 단체의 법률적 활동을 지원하는 “공익단체법률지원”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익단체에 1인의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여 단체 기획사업에 대한 법률자문,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소송지원, 법률교육 등 법률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06년 지원단체 |

지원영역	지원단체명
공익법 일반	국제민주연대 /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함께하는 시민행동
빈곤과 복지	경기도 노인학대예방센터 / 사회복지시설민주화전국연대회의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여성	씨알여성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 전국여성노동조합 /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폭력상담소 창원 여성의 전화 / 인천 여성의 전화 / 성매매없는세상 '이룸' / 이주여성의 집 '위홈' 청주이주여성인권센터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충주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이주와 난민	청주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 지구촌동포청년연대 /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천주교 서울 대교구 산하 필리핀 공동체 외국인노동자상담실
장애인	한국농아인협회 / 광주 중증장애인조례제정본부 / 서울장애인연맹(DPI) / Good Job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서울여성장애인연합 성폭력상담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2006년 지원내용 |

지원영역	지원사업
공익법 일반	주민참여매뉴얼 제작 및 교육, 주민소송 지원, 지역주민자치단체에 대한 법률자문, HIV/AIDS 감염인 차별 공동 대응, 성전환자특별법 제정 연대위 활동 등
빈곤과 복지	아동학대 상담원 대상으로 한 법률교육 및 법률매뉴얼 제작, 노숙인 법률상담, 노인학대예방 법률매뉴얼 제작 및 법률교육, 정신보건시설 방문 실태조사 등
여성	가정폭력 피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소송지원 및 국적신청 지원, 이주여성지원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법률교육 및 법률 매뉴얼 제작, 성폭력·성매매피해 여성 소송지원
이주와 난민	산업연수생 피해 소송 지원 및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보고서 준비, 활동가 대상으로 한 법률교육 및 법률매뉴얼 제작, 버마, 네팔 난민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불허처분취소소송, 난민법 제개정 세미나 및 공청회 등.
장애인	청계천 접근권 차별소송, 김포 사랑의 집 대책위 활동,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입법활동

단체 활동가 법률교육 및 법률매뉴얼

공감은 공익단체 활동가의 법률 전문성을 강화하여 각 단체에서 진행되는 법률관련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교육을 진행해왔습니다.

“찾아가는 법률교육”

2007년부터 장애인, 이주노동자, 여성, 주민자치, 노인, 아동, 성소수자 단체 등의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시적인 법률교육 접수창구를 마련해 공감에서 직접 발로 찾아가 법률교육의 대상과 영역을 확대하려 합니다.



2006년 주요 법률교육

【장애인】

자립생활총연합회 실무자 법률교육 / 정읍장애인복지관 성년후견교육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 대학 “장애인 관련 공익소송의 현황과 과제”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상담원 법률교육 / 전국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상담원 법률교육

【이주노동자·난민】

이주노동자 법률매뉴얼 교육 / 대구 성서공단노조 이주노동자 법률교육 / 민가협 월례포럼 난민법 강의
이주노동자지원단체 활동가 법률교육 /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강의 “이주노동자 법제의 현황”
천안 모이세 활동가 강의 “이주노동자 법·제도의 현황과 미래”
귀환 콘소시엄 해외실무자 양성교육 “외국인력정책과 이주노동자의 권리”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활동가를 위한 법률교육



함께하는 공익소송

“공익법 활동은 법체계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며 사회운동과 법이 만나는 지점이다.”

_ R.A.Baum

【여성】

고양 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법률교육 / 충주결혼이민자 지원센터 법률교육
청주 이주여성인권센터 법률교육 / 청주의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법률교육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센터 법률교육 / 아시아의 친구들 법률교육
한국 인권재단 강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살이' / 대구 여성회 법률교육
아산결혼이민자 지원센터 법률교육 / 창원여성의 전화 법률교육
이주여성 1366 상담원 법률교육 / 성공회대 '인권과 평화' 특강
성매매없는세상 '이름' 성매매 법률교육

【빈곤과 복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전문상담원 대상 법률교육 / 부랑인시설생활과 인권 교육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창업자 법률교육 / 경기도노인복지센터 노인관련 법률교육
개인 복지시설 운영자 인권교육 / 노인복지 담당공무원 인권교육
대한변호사회 주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법률교육 “노인학대 관련법의 이해 및 법적 대응절차”
부산노인시설협회 직원연수

【공익법 일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이해 - 아산 시민예산학교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법 직원교육
37기 사법연수원 사회보장법학회 특강

공감은 이주노동자·난민·장애인·아동·여성·성소수자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복적인 인권침해 및 차별적 관행, 우리 사회의 공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률자문·소송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 부터 상시적인 접수창구를 마련해 그 대상과 영역을 확대하려 합니다.

빌딩 숲에 둘러쌓인 서울 도심 한가운데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곳에는 사람들의 마음에 휴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조그만 돌멩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예쁜 꽃, 어느 청년 조각가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계천은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장애인들에게 청계천은 마음의 안식처가 아닌 또 다른 마음의 상처를 갖게 만드는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공감에서는 청계천의 장애인 접근권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1994년 이래 900명에 가까운 난민이 유입돼 정부에 우리 정부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탄압을 받고 어렵게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이 가운데 우리 정부가 난민으로 공식 인정한 사람은 고작 50여명 뿐입니다. 공감에서는 이러한 난민을 위해 공익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 2월 서울행정법원 제3재판부는 버마 민주화운동가 9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2005구합20993) 청구소송에서 원고 중 1명을 제외한 8명에 대한 불허결정을 취소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장애아동 여행자보험 가입 거절은 부당”

보험사가 장애아동들에게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부했다면 장애아동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부(재판장 이은신 부장판사)는 21일 여행자보험을 가입하려 했으나 거절당한 장애아동 36명이 D화재 해상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D사는 원고 1인당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장애아동 여행자보험가입 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승소하게 된 첫번째 사례로, 관련 보험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지난해 3월 사회적응교육을 위해 비장애아동과 함께 서울, 인천 등으로 여행할 계획을 세우고 보험에 가입하려 했지만 D사는 내부방침 등의 이유로 가입을 거부했다.

하지만 아동들은 뇌병변, 발달장애, 언어장애 등 일상생활에 약간의 지장을 받는 정도의 장애였고, 아동 개개인에게 도우미교사를 배정해 일반인들보다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원고들은 “D사의 태도는 헌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과,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행복추구권 및 인격권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라며 지난해 12월 27일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을 대리해 소송을 수행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그동안 장애아동들에 대해 위법적으로 불합리하게 계속돼왔던 차별적인 관행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판결의 의미를 밝혔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2004년 1월 아름다운재단의 공익변호사기금을 재정기반으로 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비영리 공익변호사 모임으로 현재 5명의 변호사와 2명의 간사가 상근활동을 하고 있다.

장시복 기자

2006년 주요 공익 소송

【장애인】

청계천 접근권 차별 손해배상청구소송
장애아동의 보험가입차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

【이주노동자·난민】

산업연수생에 대한 부당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
버마민주화활동가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소송
버마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항소심
중국민주화운동가 가족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소송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정보공개청구소송
미등록이주노동자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소송
파키스탄 산업연수생 퇴직금 청구 소송

【여성】

가정폭력피해여성의 남편 상해치사사건
성매매피해여성의 채무부존재 확인·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등 다수 진행
국제결혼피해여성의 가사소송
필리핀 성매매피해여성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빈곤과 복지】

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고발-김포사랑의 집사건

【공익법 일반】

서천군수의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소송
광명시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건설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소송
성북구의회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소송
재판 지연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에 대한 집시법 위반 사건
공익제보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사건
성소수자 호적정정 신청



공익법 관련 제도 개선 및 연구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과 공익법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정책에 대하여 조사·연구를 진행합니다. 관련 외국의 운용사례를 연구하여 국내 공익법활동의 기초를 점검하고, 장애인시설생활자 인권 실태조사 등 인권관련 실태조사에 각 단체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세요.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수막에는 성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여성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내용이 드러나 있습니다. 공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할지역내 옥외 광고물에 대한 관리, 규제 의무 해태로 인해 여성, 베트남 등 외국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차별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외국에도 공익법활동을 하는 변호사가 있을까?’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형태도 다양하고 그 숫자도 굉장히 많더라구요’

‘어떻게 활동할까? 어떤 고민을 할까’

공감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앞으로의 공감 활동을 위한 좋은 롤 모델을 찾고 싶은 욕심도 있었습니다.

더 많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고마운 분들이 계셨습니다.

3주 동안 뉴욕, 워싱턴 D.C,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공익법단체 방문과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잠재적인 프로보노 활동가로 인턴에 대한 다양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공익법 활동에 관심있는 변호사들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활동 내용과 영역의 다양성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 후원의 밤 등 재정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엿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성, 인종차별 국제결혼광고 ‘안돼!’ 시민단체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준비된 베트남 아가씨, 마음만 먹으면 가능합니다.”
“초혼, 재혼, 장애우... 완전후불제”
“베트남 슷처녀, 65세까지 = 100% 성사”

성, 인종차별적인 국제결혼 광고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됐다. ‘차별적 국제결혼 광고대응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1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제결혼광고는 성차별과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인간의 존엄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광고 규제와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베트남평화운동단체 ‘나와우리’,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언니네트워킹, 한국여성성의전화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지난 5월 20일, 베트남유학생, 결혼이주여성, 산업연수생들과 함께 대학로 거리에서 ‘성상품화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광고반대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다.

공동행동은 또한 6월 16일부터 7월 10일까지 인터넷에서 진행한 캠페인을 통해 수집된 128개의 각종 인권침해적 광고물 사진과 시민들의 반대서명을 진정의 증거로 함께 제출했다.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결혼 중개 행위 및 국제결혼 광고 행위는 성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여성, 외국인에 대한 차별 행위”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관할지역내 옥외 광고물에 대한 관리, 규제 의무 태도로 인해 여성, 베트남 등 외국인의 인권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고, “정부는 이를 단속 규제할 수 있는 통합적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진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소라미 변호사는 “현행법 안에서 인권침해적이고 성차별적인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나 법적, 제도적 측면이 미비한 상태”라며 “정부가 필요성을 시급히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인순 민주노동당 최고위원도 지지발언을 통해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문제제기 후 업체들이 내거는 현수막의 수가 줄은 듯이 보이지만, 중개업자들은 단속이 뜸한 주말에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월요일에 자진 철거하는 식으로 하거나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 다른 매체를 활용한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관련 법 조항을 정비하고 대책마련에 나서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정 기자

법·제도 개선 및 연구조사

-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법제연구 보고
-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세미나 토론
- 다문화가정의 정책지원 토론회
- 한국법학원 인권심포지엄 ‘이주여성의 인권과 복지’ 토론
- 법무부 외국인처우기본법안 공청회 토론
- 성년후견법 제정 활동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활동
-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 제·개정 작업
- 차별적 국제결혼 광고에 대한 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및 대응 캠페인
-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요양시설 방문조사 및 의견서
- 청렴계약제 관련 판례비평 및 좌담회
- 기부금품모집및규제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연구
- 주민투표제도의 절차와 의의에 대한 연구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정책권고 자문과 의견서
- 국제인권자유권규약 제17조 NGO보고서 작성
- 연예유흥비자 시스템 실태조사
- 이주여성인권포럼 운영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연구
- 난민법 제개정 연구
- 다국적기업과 인권기준 연구
- 이주인권연대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실태조사 보고회 참가
- 국제이주기구 이주관리매뉴얼 세미나 토론
- 다국적기업 인권침해 실태조사: 인도
- 미국 공익법단체 방문연수



공익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중개

아름다운 네트워크

변호사, 전문가,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중개하고, 공익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익법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직원연구원, 전문가 그룹 및 인턴십 운영

- 정기·수시·특별 인턴십 운영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익인권법연구소 인턴십 운영
- 법무법인 총정 - 펠로우십 프로그램, 1년 10건 공익소송 수행 약정
- 법무법인 지평 - 이주노동자단체 활동가를 위한 법률매뉴얼 제작 지원
- 공익활동 기초연구
- 공감월례포럼 진행

공꾸는 청년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일터

8명이 일하는 사무실로 알았는데 막상 사무실에 와서 보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놀랐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감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무급 인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법률지원 활동 보조, 리서치 업무, 기부자관리, 뉴스레터 편집팀 활동, 사무실 운영 관련 행정업무 보조 등 인턴이 없으면 공감 활동이 어려울 만큼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년 2회 공개채용, 외부 기관의뢰 등 다양한 형태로 선발하여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감에서
인턴으로
살기

공감 사람들

면접 때 공감에서 뭘 얻어가고 싶은지 염변호사님이 질문하셨었지요. 변호사님들이 어떤 동선으로 움직이시는지,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옆에서 보기만 해도 큰 공부가 될 것 같다고 했더니 염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인턴을 하면서 전공인 음악이 아닌 분야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았고, 꿈에서까지 엑셀파일이 나올 정도로 매일 수치 확인과 자료입력 업무만 해도 배우는 게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인턴이 없으면 그런 일을 간사가 다 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구요. 책상에 쌓여있는 서류더미와 설 새 없이 올려대는 전화벨, 간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열심히 도와드렸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가 얻은게 너무 많더라고요. 사무실에 나와있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되었습니다. 보수가 많지 않고, 야근도 자주 하시고, 때로는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실거라는 건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사전 약속도, 상담전화 요청도 없이 안국역까지 와서는 어떻게 찾아가야 되냐고 다짜고짜 묻는 사람들을 때로는 몇 시간씩 붙들려 상담해주는 변호사님들을 보면서 공익변호사, 인권변호사의 생활을 엿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변호사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했고, '나도 나중에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인턴간담회 및 뉴스레터제작을 통한 살아있는 공부

공감이 인턴들을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평상시에도 공부가 될 만한 일들이 많음에도 공감의 활동과 인권현장의 이모저모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따로 간담회까지 열어줘서 정말 좋았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뉴스레터편집팀 활동을 하면서 원고청탁이라는 것도 해보고,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인권위원회에 방문해서 사무총장님과 인터뷰도 해봤습니다. 평택 대추리에 취재 갔던 일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대추리에 가서 현장의 모습을 보고 그 기억들을 다듬어 기사까지 써봤던 것은 제게 큰 경험이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 더 행복한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도 웃게 만드시는 황변호사님의 웃음소리,
 쫄면이나 비빔냉면 같은 새콤한 음식을 좋아하시는 소변호사님,
 저희 남편보다도 '어린' 염변호사님,
 과묵하신 줄 알았는데 황변호사님과 농담을 주고받으시는 모습이 너무 재밌었던 정변호사님,
 요즘 어떤 일을 하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을지 관심가져 주셨던 김변호사님,
 흥대에도 놀러가고, 유기농커피숍도 가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하였던 간사님,
 그리고 인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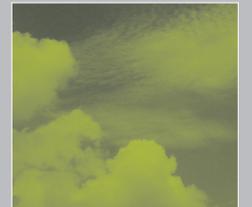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이름이 '동의(同意)'가 아닌 '공감(共感)'인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단순히 공익활동에 뜻을 두고 그러한 활동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의 기쁨과 슬픔에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임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만 가지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지만, 상대의 아픔에 분개하고 같은 마음으로 아파해주는 마음도 없이
 공익변호사 활동을 시작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공감의 여러분들은, 변호사님, 간사님, 인턴들까지도 모두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일하고, 이 사무실을 통해서 사회로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고 선한 영향을 끼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남깁니다. 공감 힘내세요!!!!

이승희 인턴

공감의 활동영역



- 장애인
- 이주노동자 · 난민
- 여성
- 빈곤과 복지
- 공익법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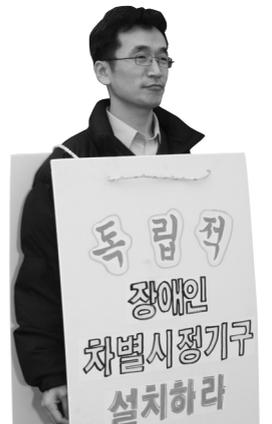
장애인 | 공감의 활동영역

장애인 분야에서는 충남장애인부모회 아산지회와 함께 ○○보험회사를 상대로 장애 아동의 보험가입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청계천 접근권 차별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 및 후보자방송에 있어서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자막 내지 수화방송을 하여야 함에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이를 범법법인 총정에 연계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 실무자 및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법률교육을 실시하였고,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와 함께 여성장애인 피해자 성폭력 지원 가이드북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민관합동회의 참여하였고,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모범조례 작업·장애여성 성폭력 관련 형법 개정 작업·성년후견제도 법제화 작업 등을 함께하였습니다. 한편 KBS 제3라디오 장애인방송인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프로그램 중 매주 화요일에 '장애인의 인권찾기'에 출연하여 장애인들의 여러 인권문제에 관한 소식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 장애인 여행자보험 가입거절에 대한 보험사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 KBS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인의 인권찾기' (매주 화요일 출연)
- 국가인권위원회 부여 정신병원 방문조사 및 의견서 작성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시립·대남정신병원 방문조사 및 의견서 작성
- 공직선거법상 청각장애인 선거방송 및 후보자방송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범법법인 총정)
- 청계천 접근권 차별 손해배상청구소송
- 공감 인턴 간담회: 장애인·복지시설관련 활동
- 보건복지부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자립생활총연합회 실무자 법률교육
- 정읍장애인복지관 성년후견교육
-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세미나 토론
-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법제연구 보고서(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하면 안 될까?

- 염형국 변호사

장애인하면 '불쌍한 사람들'이라며, "함께 사는 세상 서로 돕고 살아야지요." 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기 아이의 짝이 장애인일 때, '친하게 지내라'는 말보다는 담임선생님에게 짝을 바꿔달라고 하거나, "특수학교가 있는데..." 하며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식당에 장애인 손님이 들어오려고 할 때에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한다"며 거절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기 지역에 장애인학교나 시설이 생긴다고 할 때에는 '땅값이 내려간다', '지역 이미지가 나빠진다' 등의 이유로 결사반대하기도 합니다. 장애를 가지고도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격려하면서도 막상 직장에 장애인이 지원서를 내려고 할 때에는 "그 몸으로 일은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라며 노골적으로 싫은 내색을 합니다.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위와 같은 반응은 그리 낯설지도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장애인들에게는 견고한 장벽과 굴레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의 편견과 배제로 인해 교육에서, 직장에서, 사회활동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어서 비장애인들의 눈에는 잘 띄지 않습니다. 비장애인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는 장애인에게 열등하고 무능력하다는 낙인을 찍고, 그러한 낙인은 또 다른 차별을 낳게 되는 차별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뿌리 깊고 쉽사리 해결될 수 없는 장애인 차별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문제는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차별금지법과 차별시정기구가 필요합니다. 우선 차별기간의 영구성입니다. 학벌이나 비정규직,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그 지위의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문제는 전 생애에 걸친 문제입니다. 둘째로 차별유형의 총체성입니다. 다른 집단에 대한 차별은 주로 고용 영역에 집중되어 있으나 장애인은 고용뿐만 아니라 교육, 이동, 정보접근, 사법절차, 문화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차별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장애 및 차별판단 기준의 다양함입니다. 다른 집단에 대한 차별에 대한 판단은 기준이 명확하여 그에 대해 큰 문제가 없으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의 판정기준에서부터 차별의 판단기준이 다양하고도 전문적이어서 판단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로 장애인의 당사자주의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유독 자신의 문제에 관해서도 주체가 아닌 정책의 대상이었고, 주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장애인의 인권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과 선택을 존중하고, 그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그러한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장애인의 문제에 있어 인권문제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고 법제도와 정부시책을 복지에서 인권의 관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감의 활동영역 | 이주노동자 · 난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 구제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특히 출입국과 관련하여 단속, 보호, 강제퇴거 절차상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과 난민신청자들이 적절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요 활동

- 이주노동자 단속, 보호 실태조사 발표회
- 유엔난민기구 국회의원을 위한 무국적자 편람 감수
- 이주노동자지원단체 활동가 법률매뉴얼
- 산업연수생에 대한 부당행위를 이유로한 손해배상소송(이주인권연대)
- 마○○○ 외 8명 사건-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소송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연구
- 틴○ 사건-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연구
- 이주정책연구소 세미나 - “출입국관리법의 쟁점과 인권적 대안” 발제
-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사건-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 신원보증철회로 출국명령서 발부된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강의 “이주노동자 법제의 현황”
- 귀환 콘소시엄 해외실무자 양성교육 강의 “외국인력정책과 이주노동자의 권리”
- 스페인 무용단 체불임금 법률상담
- 천안 모이세 활동가 강의 “이주노동자 법 · 제도의 현황과 미래”
- 고용허가제법 개정 준비회의(민노당)
- 난민법 제정 연구
- 캐나다난민위원회 토론토 국제회의 참가
- 기획소송, “차별에 맞선 소송”(이주인권연대, 외노협)
- 이주정책연구소 세미나 - “한국 난민법제의 현황과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발제
- 국가배상법 & 범죄피해자구조법 상호주의 정보공개청구
- 국가인권위원회 통보의무 의견서 제출
- 대구 성서공단노조 이주노동자 법률교육
- 법무부 출입국관리법개정안 공청회 참가
- 일본 난민NGO PFB 관계자 면담
-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공청회” 토론회(법무부)
- 인권단체연석회의 반차별 추진팀 출입국관리법 개정 참여
- “이주인권연대 간담회” - 출입국관리법 개정 발제(이주인권연대)
- 단속과정 인권침해 대응회의
- 이주인권연대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실태조사 보고회 참가
- 국제이주기구 이주관리매뉴얼 세미나 토론
- 국제이주연구소 월레포럼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 발표
- 법무부 외국인처우기본법안 공청회 토론
- “외국인력 도입,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발제(한나라당 배일도의원)
- “인권적 측면에서의 고용허가제 검토” 공청회 토론(국가인권위원회)

버마 아라칸족 난민들의 이야기

사람이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희망을 가진다는 것

- 황필규 변호사

얼마 전 버마 아라칸족 난민캠프의 실태, 다국적기업의 가스개발에 따른 인권침해가능성 등을 조사하러 인도 미조람주의 아이즐시에 다녀왔습니다. 이 난민캠프가 버마 국경 내에 있고 인도 측이나 버마 측에서 외부인의 진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관계로 난민들이 며칠 동안 버스를 타고 그리고 걸어서 아이즐시까지 와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사람이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희망을 가진다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 글은 이들과의 만남을 가졌던 저의 기록입니다.

2006년 11월 8일 수요일

오늘은 주로 여자들이 면담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면담 대상인 여성 4명 모두 미성년자였다. 여성으로서 받는 차별이나 고충 등 별도의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던 나로서는 면담 대상에 성인여성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많이 아쉬웠다. 면담 장소는 버마인의 가정집이었는데 추측컨대 현지 안내인 중 한 명의 집인 것 같았다. 국제민주연대 활동가와 나에게만 따뜻한 자리를 주고 면담할 사람들은 모두 찬 바닥에 앉도록 되어있었다.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할 겸(면담에서는 대답을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면담 받을 사람이 편한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자리를 바꿨다.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니까 면담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눈물이 났다.

처음 면담을 한 소녀는 17세로 아라칸 지역에 있을 때에는 고등학생이었는데 부모의 토지가 강제수용되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부모와 함께 2004년 난민캠프로 오게 되었다고 했다. 6살 때 무면허의사에게 주사를 잘못 맞아 한쪽 다리가 마비되어 있었다. 본인이 강제노동에 동원된 적은 없다고 했다. 무엇보다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싶고, 컴퓨터를 제일 가지고 싶고, 장래 의사가 되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싶다고 했다. 읽을거리로는 잡지나 책 등이 조금 있으나 거의 없고 필기구는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다고 했다.

또 다른 16세의 소녀는 2003년에 난민캠프에 왔는데 학교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녔다고 했다. 마을에 있을 때 부모가 강제노동을 강요받았고 본인도 10세 때부터 4년 동안 거의 매달 3~5일씩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돌과 나무를 운반하는 일을 강요당하였다고 한다. 몸이 너무 약해서 지쳐 죽을 것 같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들 중 제일 어른스러워 보이는 17세의 한 소녀는 올해 난민캠프에 왔는데 6년 전에 부친이 쌀을 다른 지역에 팔았다는 이유로 군인들이 한밤에 찾아와 부친을 잡아가서 손을 묶고 때리고 여러 날 동안 구금하면서 집안의 모든 재산을 가져갔다고 했다. 부친은 그 때 난민캠프로 도망쳐왔고 최근까지 부친의 행방을 모르는 상태에서 6년 동안 풀 깎기 등 강제노동에 동원되다가 부친과 연락이 되어 모친과 다른 형제들과 난민캠프로 왔다는 것이다.

이렇게 아이들이 많을 줄 알았으면 뭐라도 선물을 준비 했을텐데 하는 생각이 미치면서 혹시 나누어줄 것이 없을까하여 가방을 뒤져보니 온갖 필기구가 잔뜩 들어있는 필통이 눈에 들어왔다. 당장 쓸 최소한의 필기구를 남기고 아이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면담이 끝나고 오후에는 버마활동가의 주도 하에 아이들을 데리고 시장으로 물건을 사러 갔다. 이런 시장을 둘러보고 물건을 사는 것이 흔히 있는 일은 아닌지 아이들은 마냥 신기해하며 옷가지, 신발, 축구공 등을 샀다. 필기구만 준 것이 좀 뭐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이들에게 공책을 하나씩 선물로 사주었다. 그리고 이 아이들과도 작별인사. 과연 이 꽃들에게는 희망은 있는가.

공감의 활동영역 | 여성



2006년 공감은 '여성인권' 을 위한 활동으로서 국제결혼 이주여성 이슈를 중심으로 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 피해를 입은 내·외국인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소송지원, 법률자문, 법률교육, 법·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 '소송지원' 으로 성매매피해를 입은 필리핀 여성 6인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상습적인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남편 살인죄에 대한 형사 변론,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키르기스스탄·중국·베트남 여성의 가사소송 등 총 20여건의 소송을 지원하여 폭력피해를 입은 내·외국 여성의 인권을 옹호하였습니다.
- 공감은 '법률교육 및 법률 매뉴얼 제작' 을 통해 현장 활동가들의 법률 전문성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여성들에게 법률적 지원이 나누어지도록 하였습니다. 2006년 한 해 동안 공감은 전국 단체로부터 수시로 법률교육 신청을 받아 '창원, 대구, 청주, 충주, 광주, 아산, 부천, 인천, 평택' 등 전국 각지에서 이주여성지원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법률교육을 총 15차례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활동가 법률교육,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지원 가이드북 제작, 이주여성과 그 자녀를 위한 법률매뉴얼 제작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 '법·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으로 국제결혼 중개 시스템 현지(베트남, 필리핀) 조사, 연예유희 비자(E-6)를 통해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여성 인권실태 조사 등의 연구에 결합하였고, 이러한 연구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정부의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정책 다시보기' 토론회 기획, '성·인종 차별적 국제결혼 광고대응을 위한 캠페인' 기획 외 총 20여 차례 토론회 및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제결혼중개업 규제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마련에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 가정폭력피해여성 박○○사건 살인죄 형사변론
- 가정폭력피해이주여성 김○○이혼사건
- 성매매피해여성 장○○사건 손해배상 변론
- 성매매피해여성 조○○사건 민사소송 변론
- 필리핀 성매매피해여성 6인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위임·진행
- 결혼 후 성매매 강요받은 중국여성에 대한 가사소송지원
- 성매매피해여성 조○○, 이○○ 사건 업주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 러시아 여성 결혼 이민자의 양육권 소송지원
- 박○○ 성폭력 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변론
- 가정폭력 피해 중국 여성에 대한 가사소송 지원
- 국제결혼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규제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 가정폭력 피해 임○○사건 소송지원
- 인천여성의전화 방문 법률 상담 및 소송지원
- 이주여성의 집 '위홈' 방문 법률 상담 및 소송지원
-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방문 법률상담
- 이주노동자 법률 매뉴얼- 여성·아동 파트 집필
- 고양 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법률교육
- 충주결혼이민자 지원센터 법률교육
- 청주 이주여성인권센터 법률교육
-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상담원 법률교육
- 청주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법률교육
-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센터 법률교육
- 아시아의 친구들 법률교육
- 대구 여성회 법률교육
- 아산결혼이민지원센터 법률교육
- 창원여성의 전화 법률교육
- 이주여성 1366 상담원 법률교육
- 성매매피해여성상담소 이름 법률교육
- 전국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상담원 법률교육
- 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 지원 가이드북(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포럼 발제: 국제결혼 중개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하여
- 민변여성위원회 월례워크숍: '여성결혼이민자 유입 실태 및 국제결혼 중개 시스템의 문제점' 기획
- 강간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의견(한국성폭력상담소)
- 인권재단 강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살이'
- 성공회대 '인권과 평화' 특강-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과 법적 현실
- 창원여성의 전화 '다문화가정의 정책지원 토론회' 토론자 참석
- 한국법학원 인권심포지엄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과 복지' 토론자 참석
- 이주여성인권포럼 기획·진행
- 국제결혼중개시스템 베트남·필리핀 현지 조사 진행 및 보고서 작성
- 차별적 국제결혼 광고 대응을 위한 공동행동 캠페인 기획·진행
- 정부의 결혼이민가족지원정책 다시보기 토론회 기획·진행
- 문화관광부 용역 연예유흥비자 시스템 실태조사
- 형법 내 성폭력 관련 법 개정 작업

그들의 “베트남 결혼 원정기”

- 소리미 변호사

국제결혼은 <나의 결혼 원정기>나 <너는 내 운명>과 같은 최근에 개봉한 한국 영화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이 때 국제결혼은 남자 주인공의 캐릭터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적인 장치로 사용되기도 하고 전체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전면적인 소재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현실은 어떠할까요?

지난 11월에 베트남으로 국제결혼 중개과정 현지조사를 다녀왔습니다. 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 중 하나는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들의 맞선이 진행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대중매체의 보도를 통해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장면은 머리와 마음에 또 다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남성 1명은 1시간 만에 총 100~200여명의 베트남 여성 중에서 한 명의 배우자를 선택했습니다. 한 번에 15~20명의 여성들을 나란히 세워 보고 그 중에서 3~5명의 후보자를 고르는 방식으로 1차, 2차, 3차로 여성을 추려나갔습니다. 최종 선발 과정까지 남은 10여명의 여성 중에서 최종 선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남성은 여성의 출신지, 나이, 학력, 외모만으로 여성을 선택하게 됩니다. 한국 남성은 그 과정이 진땀나는 지 연신 손수건으로 땀을 훔쳐내며 쉽게 여성들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답답했는지 중개업자는 옆에서 '치아가 건강해야한다', '암내가 나면 안 된다', '손이 너무 보드라우면 고생을 못 견디고 도망간다' 며 계속 참견해댔습니다.

베트남 여성들은 최종 선택 과정에 이르기 전에는 자신을 선택하는 남성의 국적도, 나이도, 직업도 모릅니다. 최종 선발 과정까지 살아남지 않는 한 여성들에게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최종 선택에 남게 된 10여명의 여성에게 비로소 남성의 직업, 수입, 시부모 부양 여부 정도의 정보가 주어집니다. 중개업자는 최종 선발 과정에 남은 여성들에게 남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방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쟁률이 높은 맞선에서 선택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성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듯 보였습니다.

맞선 1시간 만에 배우자 선택에 성공한 커플들에게는 조잡한 한국어-베트남 사전이 주어졌고, 그들은 어색하게 손을 마주 잡고 웃으며, 남은 하루 동안 사전에 의지하여 소통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베트남 여성들의 부모들을 시골에서 불러와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고 합방을 진행합니다. 마치 당사자에게 주저할 사이를 주지 않으려는 것처럼 결혼식은 일사천



리로 진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베트남 여성은 약 2~3달 간 비자 발급이 나올 때까지 애타게 기다리게 됩니다.

혹자는 많은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파탄률이 1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왜 괜한 생트집이냐고 되묻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렇게 국제결혼 과정이 왜곡되어 있는데도 파탄률이 10% 정도로밖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이 왜곡된 문제가 터져 나올지 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국제결혼 성립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에 대하여 진지하고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후 상대국과 발생할 외교적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국제 사회에 있어서 한국 사회의 위상도 치명적인 위해를 입을 것입니다.

과연 국제결혼 성립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평등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한걸까요? 과연 국제결혼 성립 과정이 관습적이고 사적인 자치의 영역이기에 당사자들이 알아서 할 문제로만 치부되어야 할까요?

빈곤과 복지 분야에서 공감은 노숙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의 분야에 있어서 법률상담과 법률매뉴얼 작업, 법률교육, 단체자문, 법제도 개선 연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노인 분야에 있어서 대한변호사협회 노인인권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 노인학대예방센터와 공동으로 노인학대 예방 법률매뉴얼 작업을 진행하였고, 전국 노인학대예방센터 상담원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동 분야에 있어서는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법률상담 및 아웃리치와 아동학대전문상담원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하였고, 노숙인 분야에서는 노숙인 금융피해자 법률상담 및 단체자문과 부랑인 생활시설 운영자 인권교육을 하였습니다. 복지시설 분야에서는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시설 방문조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으로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법제연구 보고서 작업에 참여하였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작업도 함께하였습니다. 또한 문제시설에 대한 고발 및 토론회 참석, 복지시설 운영자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 노인학대 예방 법률매뉴얼(경기도노인학대예방센터 · 대한변협)
- 개인 복지시설 운영자 인권교육
- 노인복지 담당공무원 인권교육
- 철도공안 및 경찰관의 노숙인에 대한 경범죄처벌법 적용에 관한 자문
- 김포시 · 복지부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위 진정
- 김포사랑의 집 고발, 성폭력 무혐의 항고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화학교 직권조사에 대한 의견서 작성
- 노숙인 금융피해자 법률상담 및 지원
- 부산노인시설협회 직원연수
- 경기도노인복지센터 노인관련 법률교육
- 정신보건시설 방문 실태조사
- 인권위원회 정신요양시설 방문조사 및 의견서
-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전문상담원 대상 법률교육



노숙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

- 김영수 변호사

2005년 겨울 서울역에서 한 노숙인의 사망을 이유로 노숙인들이 집단으로 '난동'을 부린 사건이 많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대다수의 언론에는 하루 2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노숙인들이 집단 '난동'을 부린 사실을 들어 노숙인 문제의 심각성을 보도했습니다. 한 사람이 거리에서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과 그 배경에 대한 내용보다는 오히려 노숙인들의 난동과 이로 인한 서울역 이용객들의 불편함과 두려움이 다소 과장되게 보도함으로써 노숙인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경찰은 구속수사 방침을 정해 사진채증된 '난동' 가담자들을 검문하고 연행하기 시작했으며, 한 중앙일간지는 사실에서 "노숙자 밀집구역에 대한 경찰의 순찰을 강화해 이들의 비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서울시는 기다린 듯 노숙인대책으로 강제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내놓았습니다.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사실상 '감금'하겠다는 뜻인 셈입니다.

노숙인문제와 관련해 이러한 접근이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철도공안의 단속과정에서 노숙인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경찰은 합리적인 혐의 없이 노숙인을 용의자를 체포하여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공권력, 공공장소를 관리하는 역무원, 공안들의 편의와 승객의 쾌적함만이 있고, 같은 시민으로서 이웃으로서의 노숙인은 없었습니다. 노숙인은 우리사회의 '2등시민' 으로서만 존재할 뿐이고, 시혜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뿐 최소한의 주장도 권리의 남용으로만 비춰지고 있습니다.

위 사건으로 사망한 노숙인의 49재가 동료노숙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 추모제에서 '1.22. 사망노숙인실태조사 및 근본대책마련 연대모임'은 그동안의 사망진상조사와 노숙인환경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노숙인 사망의혹사건의 전면 재조사, 응급의료 체계마련, 응급상황대처 및 노숙인 인권 옹호를 위한 'SOS센터'의 설치, 노동권과 주거권 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근본적인 노숙인대책 마련 등을 주장하고 관계기관에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거리에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사회의 치열한 경쟁체제에서 잠시 낙오하여, 병든 몸으로 힘겹게 거리생활을 하던 사람이 가장 사람이 많이 모여 있던 장소에서 몇 시간의 방치 속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보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 시선에서, 나는 아직 체온을 느낄 수 없습니다.





공익법 일반 | 공감의 활동영역

공감은 성 소수자, HIV/AIDS 감염인의 인권문제 등 소수자 인권문제와 공익제보자 지원, 주민자치, 예산감시, 해외 한국기업 감시 등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실천들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공감은 2006년부터 주민소송제도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 시민단체·주민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하여 공무원의 책임을 묻고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기 위하여 주민감사, 주민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업무추진비 사용, 지방의회의원들의 관광성 외유, 위법하고 부적절한 시설물 건립 등 지방자치단체의 낭비적 예산집행을 주민의 참여를 통해 견제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에 대해 자문하고 있습니다. 성 소수자, HIV/AIDS 감염인의 인권과 관련하여서는 인권단체들과 함께 성전환자특별법 제정·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버마에서의 한국기업 인권침해 현지 조사활동 및 국내 이슈화, UN 다국적기업과인권특별보고관 방콕회의에 참석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으며, 공익법활동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국제적 연대를 위해 일본·미국 등 공익법활동단체와의 교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 아산시 실과별예산서 정보비공개결정취소소송
- 주민참여제도 매뉴얼제작(함께하는시민행동)
- 법대 공익활동 연구(서울법대 공익인권법연구센터)
- 동물보호법 개정에 관한 의견서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관한 자문
- 제주서귀포시 버스터미널 및 복합상가 건립과 관련한 주민감사청구 사안에 관한 자문
- 정보공개불허가처분취소소송
- 병력자 정보제공과 HIV/AIDS 감염인 인권침해 문제 토론회 발제(나누리 +)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연구(KIN)
- 자유권규약 제17조 NGO보고서 작성(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
- 제주주민참여조례 자문
- 기존 절차이행가처분 등 소송기록 검토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자문
-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이유로 한 차별에 관한 자문(국가청소년위원회)
-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정 의견서 보충(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사건 공동대책위) → 인권침해 및 차별 인정, 관계자 교육 권고
- 성전환자특별법 간담회 발제(공대위)
- 소년보호처분전력을 이유로 한 군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관한 의견
- 평택 평화 법률상담소 법률상담
- 보건복지부 에이즈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공동 작성(공동행동)
- 성남시 위법한 도로개설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 주민소송 자문
- 37기 사법연수원 사회보장법학회 특강
- 다국적기업과 인권기준 연구
- 재판 지연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소송(공정·신속한 재판 사법개혁공대위)
- 국가인권위원회 소년원 인권실태 방문조사
- 두레방 의정부, 동두천 미군기지클럽 아웃리치 참여
- 유엔 다국적기업과 인권 특별보고관 방콕 회의 참가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공익법포럼 '공감' 발제
- "LGBT 인권 : UN과 아시아 국가 법정에서의 투쟁" 토론(한국성소수자문화인권센터)
- 광명시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주민소송
- "인권과 민주의 헌법재판관 임명 실현을 위한 토론회" 토론회(공대위)
- 민간인 위장납북어부 보상기각결정취소 행정소송



- 충남 서천군 주민소송
- 성북구의회 주민소송
- 기자회견에 대한 집시법 위반 사건
- 성전환자호적정정(성별 및 개명) 신청
- 미국 공익법단체 방문연수 및 보고회
- 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사건
- “성전환자특별법 제정 공동연대” 법률제정팀 참여
- “국내 이주노동의 현실과 재외동포”토론(재외동포NGO대회)
-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사건 공동대책위 참가
- 에이즈예방법 대응 공동행동 법률준비팀 참가
- 국가인권위 국제인권법 직원교육
- 다국적기업 인권침해 실태조사: 인도
- 아동학대 법률 매뉴얼 작업 진행
- 법무부 NAP 토론회 자유권 토론
- 충남 청양군 주민감사청구

“우리는 절규한다는 것이 우리의 출발점이다.”

정정훈 변호사

1945년 스위스 법원과 2006년 한국 대법원

1945년 스위스 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개인의 성별을 결정하는 것은 법이 아니다. 법은 그것이 개인과 사회에 있어 최선의 이익이 된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법률적 효과를 부여해야 한다. 사회는 그 성전환자가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할 권리가 없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의 법률적인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무엇이 그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6년 한국의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성전환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권리는 질서유지나 공공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한다. (……) 성염색체를 출발점으로 하는 성의 이분법과 불가변성의 기본 전제가 수정의 필요성을 맞게 되었다.”

1945년 스위스 법원의 판결과 2006년 대법원의 결정은 동일한 논리구조를 갖는다. 그러나 “성염색체에 근거한 성별 이분법과 불가변성의 기본 전제가 수정될 필요”는 2006년인 현재에 와서야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정체성 상실의 한을 홍길동은 울도국이라는 조선의 바깥에서 실현했다. 그 바깥이 가능했던 것은 홍길동이 소설적 공간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현실을 살아가는 성전환자들에게는 ‘법적 자아를 진정한 자신으로 인정할 수 없는’ 존재 상실의 문제를 실현할 수 있는 ‘바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법과 제도를 향해 절규해온 ‘그들’ 성전환자들에게 대법원의 결정은 환영 할 만한 것이거나 너무 늦게 온 대답이다. 지금 이곳에서 인간의 조건을 절규하는 그들에게 ‘말씀’의 이름으로 ‘천국의 나라’라는 ‘바깥’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1945년 스위스와 2006년 한국의 대비를 통해서 우리가 반성적으로 성찰해야 할 것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절규하는 목소리를 차단하고, 외면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만든 특수한 ‘사회적 공모’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다. 성별 변경이라는 중대한 결정에 사회적 대화가 부족했음을 지적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대화를 불가능하게 한 사회적 조건이 무엇이었는지를 물어야 한다. ‘차이의 도전’은 대립이 아닌 대화의 조건이다. 그러므로 ‘절규’하는 ‘우리’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희망의 증거이다. 대법원은 이제 그 여러 절규들 중 하나에 답했을 뿐이다.

태초에 절규가 있었다. “말씀”으로 그 “절규”를 가리거나 대신할 수는 없다.

* 제목 “우리는 절규한다는 것이 우리의 출발점이다.”는 영국의 정치학자 존 홀러웨이의 “권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에서 인용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공감이야기



2006년 2월 22일 공감2주년 후원행사

2004년 1월 추운겨울, 국내 최초 비영리 전업 공익변호사들의 모임인 공감이 문을 열었습니다. 갓 연수원을 수료한 새내기 변호사들이 모여 시작된 공감은 봄날을 준비하는 나무처럼 조금씩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작고 약해보이는 씨앗을 앞에 둔 사람들의 걱정처럼 공감을 향한 많은 기대만큼 걱정어린 시선을 보내는 이도 있었습니다. 2006년, 설립 2주년을 맞아 그동안 공감에 대한 많은 기대와 걱정해주셨던 여러분들에게 공감의 성장일기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몇 달동안 행사 준비를 위해 몇 십번이나 마라톤회의를 하기도 했었고, 장소섭외, 초대장제작, 홍보영상제작 등 평소에 해 보지 않았던 생경한 일들에 어색해하며 공감 구성원들이 손수 준비한 행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공감의 성장일기를 봐주셨고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생일잔치를 치를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인권의 최전선에서 들려오는 승전보

소송은 변호사의 공익활동 중 가장 직접적인 활동 중 하나입니다. 공익소송에서 얻은 좋은 결과는 단순히 이기고 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지켜지지 못했던 인권의 존재가 바로 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버마 민주화활동가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소송 일부승소, 장애아동의보험가입차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일부승소, 국제결혼 피해여성 가사소송 등 다수의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공감과 공감하는 새로운 얼굴들

새로운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참 기분이 좋고 설레는 일입니다. 공감 활동이 계속 될수록 공감을 찾는 곳도 점점 많아집니다. 좋은 일은 나눌수록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공감의 희망 나누기에 새롭게 두 분이 동참하셨습니다. 귀여운 외모만큼 다정다감한 권희 간사님과 열정으로 푹푹 뭉친 씩씩한 장서연 변호사님입니다.

공감, 거리의 변호사를 찾아 미국에 가다

공감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고, 그들의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더 많은 세상을 보고 공감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것을 얻고 싶었습니다. 지도 하나 달랑 들고 공감 5인방이 미국의 공익법단체를 찾아 먼 길을 나섰습니다. 3주동안 뉴욕, 워싱턴 D.C,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을 돌며 여러 단체를 방문하고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주자들의 대부로 불리우는 환갑이 훨씬 넘는 백발의 변호사, 거리를 집으로 삼는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거리를 밤낮으로 뛰어 다니는 청년 변호사, 공익활동을 위해 잘 나가던 로펌을 그만두고 작은 단체를 만든 잘생긴 변호사..... 짧은 시간이었지만 공익법활동을 위해 고민하고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들 속에서 공감은 다시 한번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법연수원에 부는 기부의 봄바람

새내기 법조인을 양성하는 사법연수원에 따뜻한 기부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법연수원 제37기 연수생자치회는 사법연수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과 노숙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기부행사를 실시했습니다. 150여명의 사법연수생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일하는 공감의 취지에 동참하여 공익변호사기금으로 기부신청 해주셨습니다.



황필규 변호사, 영국의 인권활동을 배우기 위해 특파되다

"아근 짝궁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너무 슬퍼요"
"황변호사님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사라지면 사무실이 너무 조용해져서 이상할 것 같아요"
밤샘 야근조 3인방의 주요 멤버이자 2006년 하반기 팀장이었던 황필규 변호사가 공감의 국제적인 활동을 위해 2007년 1월부터 6개월간 영국 옥스퍼드대학 이민학연구소에서 파견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송별회까지 했지만 매일같이 이메일로 전해오는 황변호사님의 영국소식 덕분에 빈 자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네요. 많은 배움을 가지고 돌아오시리라 믿습니다.

상복이 터진 연말

지난 연말 공감을 아껴주시고 지원해주시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좋은 상을 세 개나 받았습다. 한국장애인인권상 정책부문 수상,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상, 무지개인권상이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해낸 일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훨씬 많은지라 상을 받아야 하는지 망설여졌습니다.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서라는 의미에서 주시는 상이라 생각됩니다.



공감 주요 활동보고 2006

2006_1

- 여성 | 가정폭력피해여성 박○○사건 살인죄 형사변론(1~6)
- 여성 | 가정폭력피해이주여성 김○○ 이혼사건(2005~2006.4)
- 공익법일반 | 아산시 실과별예산서 정보비공개결정취소소송 (1~3)
- 공익법일반 | 주민참여제도 매뉴얼제작(함께하는시민행동)(1~12)
- 여성 | 성매매피해여성 장○○사건 손해배상 변론(1~)
- 장애 | 장애인 여행자보험 가입거절 건 변론(1~7)
- 여성 | 이주노동자 법률 매뉴얼- 여성·아동 파트 집필(1~12)
- 여성 | 이주여성인권포럼 기획·진행(1~12)
- 여성 | 국제결혼중개시스템 베트남·필리핀 현지 조사 진행 및 보고서 작성(2005.11~2006.4)
- 여성 | 조○○ 사건-업주상대 가압류 신청·손배청구소송(2005.12~)
- 공익법일반 | 전국 인권활동가 대회
- 이주와난민 | 강○○ 사건-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1~9)
- 이주와난민 | 아○○○ 사건-인신매매
- 공익법일반 | 법대 공익활동 연구(서울법대 공익인권법연구센터)
- 이주와난민 | 외노협,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방문
- 이주와난민 | 이주노동자 단속, 보호 실태조사 발표회
- 이주와난민 | 유엔난민기구 국회의원을 위한 무국적자 편람 감수
- 이주와난민 | 이주노동자지원단체 활동가 법률매뉴얼(1~12)
- 빈곤과복지 | 노인학대 예방 법률매뉴얼(경기도노인학대예방센터·대한변협)(2~12)
- 여성 | 필리핀 성매매피해여성 6인의 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위임·진행(2005.11~2006.12)
- 여성 | 결혼 후 성매매강요받은 중국여성에 대한 가사소송지원(2005.11~)
- 여성 | 중국여성 이○○- 남편 상대 위자료 및 이혼소송(2005.3~2006.11)
- 이주와난민 | 산업연수생에 대한 부당행위를 이유로한 손해배상소송(이주인권연대)
- 이주와난민 | 이주노동자방송국, 2005년 이주노동자 관련 법·제도 10대 사건 기고
- 장애 | KBS 제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인의 인권찾기'(매주 화요일 출연)

2006_2

- 공익법일반 | 동물보호법 개정에 관한 의견서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관한 자문
- 공익법일반 | 제주서귀포시 버스터미널 및 복합상가 건립과 관련한 주민감사청구 사안에 관한 자문
- 공익법일반 | 정보공개불허가처분취소소송(2005.12~2006.5)
- 장애 | 인권위원회 부여 정신병원 방문조사 및 의견서 작성
- 이주와난민 | 마○○○○ 외 8명 사건-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소송(2~12)
- 이주와난민 | 이주노동자기획소송 출입국 영역 계획 작성
- 이주와난민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연구(2~6)
- 공익법일반 | 자유권규약 NGO보고서 작성회의(2~6)
- 이주와난민 | 국제엠네스티 동아시아 담당관 면담
- 이주와난민 | 통보의무 조항을 근거로 한 경찰공무원의 신병인도에 대한 진정(외노협)
- 공익법일반 | 병력자 정보제공과 HIV/AIDS 감염인 인권침해 문제 토론회 발제(나누리 +)
- 공익법일반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연구(KIN)
- 공익법일반 | 자유권규약 제17조 NGO보고서 작성(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

2006_3

- 공익법일반 | 제주주민참여조례 검토
- 공익법일반 | 기존 절차이행가처분 등 소송기록 검토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자문
- 공익법일반 |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이유로 한 차별에 관한 자문
- 장애 | 공직선거법상 청각장애인 선거방송 및 후보자방송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법무법인 총정)
- 빈곤과복지 | 부랑인시설생활과 인권
- 여성 | 고양 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법률교육
- 여성 | 보건복지부 국제결혼중개업 관리법안 관련 법률자문
- 여성 |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포럼 발제: 국제결혼 중개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하여
- 공익법일반 | 인권활동가 박○○·조○○ - 구속적부심사청구
- 빈곤과복지 | 개인 복지시설 운영자 인권교육
- 빈곤과복지 | 노인복지 담당공무원 인권교육
- 장애 | 인권위원회 부산시립·대남정신병원 방문조사 및 의견서 작성
- 여성 | 인권위원회 광주 시설성폭력 관련 간담회
- 여성 |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개소 5주년 기념 토론회 토론
- 여성 | 조○○, 이○○ 사건-업주상대 손배청구소송(3~11)

이주와난민 | 탄O 사건-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3~11)
 여성 | 파OO 사건-혼인 중 보호(3~7)
 이주와난민 | 이주노동자지원단체 활동가 간담회
 이주와난민 | 자유권규약상의 소수민족의 권리 개재
 이주와난민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연구(3~12)
 이주와난민 | 마OOOO 외 8명 사건-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유엔난민기구)
 여성 | 여성위 월레워크샵 '여성결혼이민자 유입 실태 및 국제결혼 중개 시스템의 문제점' 기획
 공익법일반 |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정 의견서 보충(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사건 공동대책 위) → 인권침해 및 차별 인정, 관계자 교육 권고
 이주와난민 | 이주정책연구소 세미나 - "출입국관리법의 쟁점과 인권적 대안" 발제
 공익법일반 | 성전환자특별법 간담회 발제(공대위)
 공익법일반 | 에이즈예방법 대응 공동행동 간담회 발제(공동행동)

2006_4

공익법일반 | 상계중앙시장 주민감사청구 건 자문(4~6)
 공익법일반 |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창업자 법률교육
 공익법일반 | 소년보호처분전력을 이유로 한 군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관한 의견
 공익법일반 | 평택 평화 법률상담소 법률상담
 장애 | 청계천 접근권 차별 손해배상청구소송(4~11)
 이주와난민 |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사건-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4~7)
 이주와난민 | 누OOOO 사건-단속 중 추락사
 여성 | 국제결혼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규제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국가인권위)
 공익법일반 | 사개추위 법률구조 토론회 발표
 이주와난민 | 신원보증철회로 출국명령서 발부된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여성 | 러시아 결혼 이민자의 양육권 소송지원(4~11)
 이주와난민 |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강의 "이주노동자 법제의 현황"
 이주와난민 | 귀한 콘소시엄 해외실무자 양성교육 강의 "외국인력정책과 이주노동자의 권리"
 이주와난민 | 난민 NGO 세미나 발제
 공익법일반 | 보건복지부 에이즈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공동 작성(공동행동)

2006_5

공익법일반 | 기부금품모집및규제에관한법을 시행령(안) 검토, 국가인권위 의견서 제출(~5)
 공익법일반 | 성남시 위법한 도로개설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 주민소송 자문
 여성 | 차별적 국제결혼 광고 대응을 위한 공동행동 조직·활동기획(5~7)
 여성 | 박OO 성폭력 손해청구(5~6)
 장애 | 공감 인턴 간담회: 장애인·복지시설관련 활동
 빈곤과복지 | 변협 주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법률교육
 공익법일반 | 37기 사법연수원 사회보장법학회 특강
 이주와난민 | 라O 사건-퇴직금(5~10)
 이주와난민 | 스페인 무용단 체불임금 법률상담
 공익법일반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법률교육
 공익법일반 | 노인학대 관련법의 이해 및 법적대응절차
 공익법일반 | 다국적기업과 인권기준 연구(5~6)
 공익법일반 | 다국적기업과 인권기준 연구(5~11)
 여성 | 탈북남성과 결혼한 중국 여성에 대한 가사소송 지원(5~10)
 이주와난민 | 이주노동자 법률매뉴얼 작업 진행(5~12)
 공익법일반 | 재판 지연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소장 작성(공정·신속한 재판 사법개혁공대위)
 이주와난민 | 천안 모이세 활동가 강의 "이주노동자 법·제도의 현황과 미래"
 공익법일반 | "금기와 침묵을 넘어 동성애자 차별의 성역 '군대'를 말한다!" 토론회 참석
 공익법일반 | 차별금지법 간담회 참가(인권단체연석회의)
 공익법일반 | 오아시스프로젝트 "소유인가 사용인가?" 발제
 이주와난민 | 고용허가제법 개정 준비회의(민노당)
 공익법일반 | 시민과 변호사, "재외동포법이 차별하는 그들/우리들" 기고

2006_6

공익법일반 | 시민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작성
 빈곤과복지 | 철도공안 및 경찰관의 노숙인에 대한 경범죄처벌법 적용에 관한 자문
 공익법일반 |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창업자 법률교육
 공익법일반 | 소년원 인권실태 방문조사(6~8)
 여성 | 가정폭력피해여성 임OO사건 상해치사 형사변론(6~9)
 여성 | 충주결혼이민자 지원센터 법률교육

여성 | 청주 이주여성인권센터 법률교육
 공익법일반 | 두레방 의정부, 동두천 미군기지클럽 아웃리치 참여
 여성 | 정부의 결혼이민가족지원정책 다시보기 토론회 기획·진행
 빈곤과복지 | 김포시·복지부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위 진정
 여성 |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상담원 법률교육
 여성 |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성폭력 관련법 개정 간담회
 공익법일반 | 고충처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문의견서 작성
 장애 | 보건복지부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익법일반 | 시애틀한인회 국제수형자인도 법률상담
 이주와난민 | 법률매뉴얼 출입국부분 초안 작성
 이주와난민 | 난민법 제정 연구
 이주와난민 | 서울신문 난민의 날 특집기사 기고-객원편집인
 이주와난민 | 아리랑 TV In Focus 난민 토론
 이주와난민 | 캐나다난민위원회 토론토 국제회의 참가
 공익법일반 | 유엔 다국적기업과 인권 특별보고관 방콕 회의 참가
 공익법일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공익법포럼 공감 발제
 이주와난민 | 난민법 제개정 연구(6~12)
 여성 | 정부의 결혼이민가족지원정책 다시보기 토론회 기획·진행
 이주와난민 | 기획소송, "차별에 맞선 소송"(이주인권연대, 외노협)
 이주와난민 | 이주정책연구소 세미나 - "한국 난민법제의 현황과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발제
 여성 | 강간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의견(한국성폭력상담소)
 공익법일반 | "LGBT 인권 : UN과 아시아 국가 법정에서의 투쟁" 토론(한국성소수자문화인권센터)
 공익법일반 | KBS 라디오, 성전환자특별법 제정 관련 인터뷰

2006_7

공익법일반 | 광명시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주민소송(7~)
 여성 | 임○○ 사건 - 가정폭력사건(7~9)
 빈곤과복지 | 김포사랑의 집 고발, 성폭력 무혐의 항고
 빈곤과복지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화학교 직권조사에 대한 의견서 작성
 빈곤과복지 | 기도원 문제의 해결방안에 관한 내부토론회
 공익법일반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잡지 '내 안의 사람' 원고 기고
 빈곤과복지 | 성림재단 문제 관련 의견서 작성

이주와난민 | 국가배상법 & 범죄피해자구조법 상호주의 정보공개청구
 이주와난민 | 국가인권위 통보의무 의견서 제출
 이주와난민 | 대구 성서공단노조 이주노동자 법률교육
 이주와난민 | 법무부 출입국관리법개정안 공청회 참가
 이주와난민 | 일본 난민NGO PFB 관계자 면담
 이주와난민 | 인권단체연석회의 반차별 추진팀 출입국관리법 개정
 이주와난민 |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공청회" 토론회(법무부)
 공익법일반 | "노무현 정권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제(2006 전쟁과 혁명의 시대)
 공익법일반 | "인권과 민주주의 헌법재판관 임명 실현을 위한 토론회" 토론회(공대위)
 공익법일반 | KBS 라디오, 단체파견사업 인터뷰
 공익법일반 | KBS 라디오 "다큐멘터리 인물과 사건", 성전환자 관련 인터뷰
 이주와난민 | 인권단체연석회의 반차별 추진팀 출입국관리법 개정 참여
 공익법일반 | 민간인 위장납북여부 보상기각결정취소 행정소송

2006_8

빈곤과복지 | 노숙인 금융피해자 법률상담 및 지원(8~12)
 공익법일반 | 주민투표제도의 절차와 의의
 여성 | 청주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법률교육
 여성 | 인권재단 강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살이'
 여성 | 이주여성인권포럼 운영
 공익법일반 | 충남서천군 주민소송(8~12)
 공익법일반 | 국제노동기구 아태총회 참가
 공익법일반 | "재외동포 법제 개선 토론회 - 방문취업제를 중심으로"
 이주와난민 | "이주인권연대 간담회" - 출입국관리법 개정 발제(이주인권연대)
 공익법일반 | "PD수첩" 주민소송 인터뷰
 이주와난민 | 강제적립금 관련 기자회견 참석
 여성 |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방문 법률상담
 이주와난민 | 청주 외국인노동자 인권복지회 방문 법률상담
 여성 | 인천여성의전화 방문 법률 상담 및 소송지원
 여성 | 이주여성의 집 '위험' 방문 법률 상담 및 소송지원
 공익법일반 | 필리핀공동체 글랜신부님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 공익법일반 | 성북구의회 주민소송(9~)
- 공익법일반 | 청양군 주민감사청구 자문 및 청구서 제출
- 공익법일반 | 시민센터지원 조례안
- 공익법일반 | 경기도 수업료미납자 출석정지 조례안, 학생 급식비납부 식별기 설치사례 등 검토
- 공익법일반 | 청렴계약제 관련 판례비평 및 좌담회
- 여성 |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센터 법률교육
- 여성 | 아시아의 친구들 법률교육
- 공익법일반 | 아름다운재단 법률교육 '기부금품모집및규제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 여성 | 대구 여성회 법률교육
- 여성 | 아산결혼이민센터 법률교육
- 여성 | 창원여성의 전화 법률교육
- 여성 | 이주여성 1366 상담원 법률교육
- 여성 | 이주여성인권포럼 운영
- 공익법일반 | 일본 오카야마 퍼블릭 법률사무소 2주년 심포지움 발제
- 여성 | 시민과 변호사 원고 작성
- 빈곤과복지 | 인권활동가 김OO 영장실질심사
- 장애 | 자립생활총연합회 실무자 법률교육
- 빈곤과복지 | 부산노인시설협회 직원연수
- 이주와난민 | 단속과정 인권침해 대응회의(9~12)
- 빈곤과복지 | 경기도노인복지센터 노인관련 법률교육
- 여성 | 성매매 법률교육(9~11)
- 이주와난민 | 이주인권연대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실태조사 보고회 참가
- 이주와난민 | 국제이주기구 이주관리매뉴얼 세미나 토론(9~12)
- 이주와난민 | 변협 2005 인권보고서 "이주노동자의 인권" 작성
- 이주와난민 | 국제이주연구소 월례포럼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 발표
- 이주와난민 | 법무부 외국인처우기본법안 공청회 토론
- 여성 | 문화관광부 용역 연예유희비자 시스템 실태조사 (9~12)
- 여성 | 형법 내 성폭력 관련 법 개정 작업(9~)
- 공익법일반 | 이OO 교사 징계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청구(9~)
- 공익법일반 | 기자회견에 대한 집시법 위반 사건 (9~)
- 공익법일반 | 호적정정(성별 및 개명) 신청

- 공익법일반 | '월례 인권대화- HIV/AIDS감염인과 인권' 발제 (한국인권재단)
- 공익법일반 | 미국 공익법단체 방문연수
- 이주와난민 | 예O & 제OOO 사건-난민인정불허처분
- 이주와난민 | 민가협 월례포럼 난민법 강의
- 공익법일반 | 미국 공익변호사 단체 탐방 및 후속 보고회
- 공익법일반 | 진O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사건(10~)
- 공익법일반 | "성전환자특별법 제정 공동연대" 법률제정팀
- 이주와난민 | "외국인력 도입,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발제(한나라당 배일도의원)
- 공익법일반 | "국내 이주노동의 현실과 재외동포" 토론회(재외동포NGO대회)
- 공익법일반 | "SBS 특별다큐 - 주민소송" 인터뷰
- 이주와난민 | 월간 <사람>, "출입국관리법 관리하기 - 막거나, 가두거나, 내보낼 수 있는 천당에서 지옥까지의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고
- 이주와난민 | KBS 라디오 열린 채널, "외국인 고용허가제 논란, 무엇이 쟁점인가?" 토론
- 여성 | 문화관광부의 외국인전용클럽 등 관리·단속 방안에 관한 프로젝트- 연구원 결합
- 여성 | 한겨레- 차별적 국제결혼 광고 대응을 위한 공동행동 취재
- 공익법일반 | 성전환자특별법 제정 공동연대 법률제정팀 참여
- 공익법일반 |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사건 공동대책위 참가
- 공익법일반 | 에이즈예방법 대응 공동행동 법률준비팀 참가

- 공익법일반 | 반려동물의 도축 및 식용금지등을 위한 특별법 검토
- 공익법일반 |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이해' 원고작성
- 공익법일반 | 기부금품모집 및 규제에 관한 법률 검토
- 빈곤과복지 | 정신보건시설 방문조사권실태 방문조사
- 여성 | 성공회대 '인권과 평화' 특강
- 여성 | 창원여성의 전화 '다문화가정의 정책지원 토론회' 토론자 참석
- 공익법일반 | 평택대 사회복지대학원 강의
- 여성 | 전국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상담원 법률교육
- 장애 | 정읍장애인복지관 성년후견교육
- 빈곤과복지 | 인권위원회 정신요양시설 방문조사 및 의견서
- 이주와난민 | NLD-LA 한국지부 회원 사건-난민인정불허처분 사건 검토
- 이주와난민 | 강OO 사건-단속과정 인권침해

- 공익법일반 | 창원대 국제인권변론 특강
- 공익법일반 | 국가인권위 국제인권법 직원교육
- 공익법일반 | 다국적기업 인권침해 실태조사: 인도
- 공익법일반 | RTV 피플파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인터뷰
- 이주와난민 | UNHCR, 난민담당변호사 간담회
- 공익법일반 | 아동학대 법률 매뉴얼 작업 진행(11~)
- 공익법일반 | “에이즈예방법 대응 공동행동”(인권단체연석회의) 법률제정팀
- 공익법일반 | “성전환자가 대법원장에게” 토론회 발제(민노당 노회찬 의원)
- 공익법일반 | “이주인권연대 심포지움” 발제
- 이주와난민 | “인권적 측면에서의 고용허가제 검토” 공청회 토론(국가인권위)
- 공익법일반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 발제
- 장애 | 복지TV ‘세상바로보기’ 인터뷰

2006_12

- 빈곤과복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와 상담팀장 대상 법률교육
- 이주와난민 | 이주노동자 법률매뉴얼 교육
- 여성 | 한국법학원 인권심포지엄 ‘이주여성의 인권과 복지’ 토론회 참석
- 빈곤과복지 | 노인학대 예방 법률매뉴얼 발간
- 빈곤과복지 |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세미나 토론
- 이주와난민 | 유0000 외 2명 사건-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 이주와난민 | 이주노동자지원단체 활동가 법률교육
- 공익법일반 | 법무부 NAP 토론회 자유권 토론
- 이주와난민 | 유엔이주노동자권리특별보고관 NGO토론회 “미등록이주노동자” & “유엔이주노동자권리협약” 발제
- 이주와난민 | NLD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소송 대리인 선임
- 장애 | “청각장애인과 1종 보통운전면허 취득” - 농아인협회 용산지부
- 공익법일반 | 주간동아, 무지개인권상 수상 관련 인터뷰
- 여성 | 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 지원 가이드북(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빈곤과복지 |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법제연구 보고서(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 이주와난민 | 이주노동자지원단체 활동가 법률매뉴얼(외노협, 지평)

| 대학내일 |

용기와 희망의 빛 _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共感)’

다섯은 재미있는 숫자다.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 오형제도, 외계침략자들과 싸우는 ‘맨’ 종류들도 대부분 다섯이다. 가상의 공간만이 아니다. 아이돌 스타그룹 ‘H.O.T’ 부터 시작해 현재 최고 주가를 기록 중인 ‘동방신기’ 까지 모두 5인조다. 그들도 다섯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지구를 지키는 것도 열광하는 팬들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낮은 곳에서 소외된 희망을 되살리는 ‘빛과 소금’ 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www.kpil.org)을 만나는 날.

그 동안 삶에 대한 고민으로 흐느적거리던 마음 속 깊은 외침이 번뜩 깨어나는 듯 했다.

변호사? 그게 되기 어렵잖아

그렇다. 변호사는 되기 어렵다. 잘 나가는 일부 로펌을 제외하고는 변호사 수입이 예전만 못하다는 말도 들리지만, 매년 수 만명이 사법고시를 보기 위해 시간과 돈을 들인다. 이중 변호사가 되는 것은 1000명 정도다. 과거에 비해 합격자가 많이 늘었다고해도 여전히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의 변호사 5명도 같은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변호사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공감’ 도 소위 말하는 돈 잘 버는 ‘로펌(종합법률회사)’ 이 아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주노동자,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률상담이다. 돈 못 버는 사람들과 어울리니 돈과 인연이 있을리 만무하다.

“‘공감’ 에 간다는 얘기를 하자 아내가 그러더군요. ‘축하는 하는데 (나에게) 위로는 해줬으면 한다’ 고요.” 가장 최근, 공감호에 합류한 황필규 변호사는 공감에 들어올 때를 회상하며 말했다.

하지만 ‘공감’ 은 항상 즐겁다. 후원금으로 생활해야하는 처지라 너무도 빠듯한 살림에, 보수도 변변치 않지만 ‘희망을 되살리는’ 산파역할을 하기에 이들의 얼굴에는 뿌듯함과 보람이 절로 배어나온다. 이런 것이 즐거움으로 이어지는 것이리라.

일반화된 사회적 성공을 박차고 나온 것을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던 주위사람들도 지금은 대부분 ‘공감’ 의

적극적인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인 듯 싶었다. '낮은 곳에 임하는 용기로 소외된 희망을 되살린다.'

희망을 찾아나서다

이들이 처음 모인 것은 3년 전 겨울, 정확히 2003년 12월, 사법연수원 시절의 끝자락이었다.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 미래를 향한 첫 발자국을 내디뎌야 하는 시기였다. 이런 저런 고민도 많고, 당연히 주위 선배들에게 많은 조언을 들을때였다.

아직은 '공감'이 없던 시절이었다. 다들 마음 한 구석엔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국내 최초의 공익 변호 전문 집단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 밑그림조차 없었던 셈이다. 이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엄형국 변호사였다.

"학교 다닐때부터 현재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활동적이진 않았어요. 연수원에 들어간 후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의미있는 삶을 모색하기 시작했죠. 남들이 하지 않으면서 사회 내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탬되는 일에서 의미를 찾았다고 해야겠네요." 엄 변호사의 고민은 박원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총괄상임이사)의 연수원 강연을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변한다. 일반적인 법조 일 말고도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것. 시야가 넓어진 그는 박원순 변호사를 찾아가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 처음엔 혼자 아름다운재단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지만 곧 공익변호사 모집 공고를 통해 공개 채용을 진행했다. '공감'이 세상을 향해 보인 첫 발길질이었다.

이 발길질에 소라미, 정정훈, 김영수 3명의 변호사가 응답했다. '희망'을 찾았기에 이들은 탄탄대로를 놔둔 채 거친 벌판으로 과감히 뛰어들 수 있었다. 이듬해 1월, 새로운 한 해의 정기를 머금고 '공감'은 탄생했다. 연말엔 멋진 바리톤 음성을 지닌 황필규 변호사가 새 식구로 들어오면서 공감은 더 많은 희망을 변론할 수 있게 됐다.

희망을 변론하다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란 말이 있다. 시작도 어렵지만 이를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다는 의미로 꼭 기업에만 해당하는 말은 아니다.

'공감'도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공감'은 국내에선 처음으로 '돈 없고 연줄 없는' 사람들의 변호를 자처하

고 나선 비영리 단체였기 때문에 재원 마련이 가장 큰 문제였다(지금도 여전히 고민이다). 아름다운 재단 산하기관으로 공익변호사 기금을 바탕으로 시작은 했지만 활동하면서부터 재정적 기반은 따로 가져가기로 했기에 더더욱 힘들었다. 그래도 이들은 첫걸음에 주저않지 않았다. 아니, 그럴 수 없었다. '공감'의 도움을 기다리는 소외받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어느 덧 이들과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감'이 첫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이미 희망의 변론은 시작됐고 그 메아리는 계속 번져나갔다.

차근차근 사업계획을 세우고 검토할 여유도 많지 않았다. 변호사들이 근무를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운영 간담회를 거치고 두 달 후인 3월 16일부터 12개 단체에 대해 '제 1차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 파견지원사업'을 시작했다. 한정된 인원에 밀리는 업무를 감당하기엔 물리적 한계가 있기에 개인보다는 단체를 중심으로 일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그래도 일은 넘쳤다. 전국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단체만 줄잡아도 수백 개. 이들의 신청을 받고 선별하는 과정도 만만찮다.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했다. 바쁜 나날이었다. 처음이기에 모르는 부분도 많았지만 그래도 그들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바로 소외받은 사람들이 웃음 때문이었다. "‘외국인 보호소’와 관련된 업무를 본 적이 있어요. 그 때 느낀 점은 법대 학부 3~4학년 수준이면 할 수 있는 일도 돈이 되지 않으면 관심이 없구나였죠. 지금 제가 여기서 하는 일입니다. '공감'에서 일하면서 외국인 관련 법 개정 등 부당한 부분들이 개선되는 것을 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서 걸려온 듯한 전화를 받느라 급하게 뛰어가는 황 변호사의 모습에서 '보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공감'은 현재 공익단체에 변호사들을 파견해 법률지원을 하는 '공익단체에 대한 법률지원'을 주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4차에 접어든 이 지원사업은 그 동안 30여개의 공익단체에 공감 변호사들을 파견했다. 각종 입법안 준비, 인권규칙제정, 소송 및 법률상담 진행, 긴급법률구조활동, 법률교육 및 법률메뉴얼 작성 등 그야말로 눈코뜰새없이 바쁜 나날이었다. 3년, 쉽지는 그 움직임에 좀 쉬어야 하지 않을까 우려가 들었지만 '공감'의 활동을 계속 넓어지고 있다. 올해는 파견 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익단체에 대한 공익소송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또, 일반 변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익활동을 중개하는 뷰티풀넷(Beautiful net)을 구축할 예정이기에 앞으로 '공감'을 중심으로 한 희망변론은 점점 넓어질 것이다.

희망은 커가는데

"보수요? 부족한 것 같지는 않아요. 게다가 이미 마음은 부자잖아요." 다른 곳에서 일하는 변호사들과는 비

| 법률신문 |

**‘공감’, 한국장애인인권상 및 한국기독교협의회(KNCC)인권상 수상
이주여성·등 사회적 약자보호 공로**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이 이주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소수자 인권문제를 개선한 공로를 인정 받아 최근 '2006년 한국장애인인권상(정책개선부문)'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주최한 '제20회 KNCC인권상'을 수상했다.

공감은 올 한해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사업을 벌이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대항하는 소송을 수차례 제기했으며, 버마출신 민주화운동가들을 대리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소송에서 일부승소하는 등 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은 장애인 인권향상과 권익옹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99년 제정된 상으로 정책개선부문, 생활실천부문, 교육실천부문, 문화예술부문, 인식개선방송언론부문 등 총 5개 부문을 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또 KNCC 인권상은 87년 '박종철군 물고문사건' 진상규명에 기여한 오연상씨를 수상자로 선정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사회의 자유권 증진과 민주발전에 기여한 개인 혹은 단체에 상을 수여해왔다.

정성운 기자 jung@lawtimes.co.kr

교도 안되고 일반 중소기업보다 못한 월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지나가는 말로 물어보자 돌아온 답이다. 우문현답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보다. 일반 로펌에 갔으면 변호사 수임비에 승소할 경우 받는 승소료까지 꽤 짭잘한(?) 수입을 얻었을 그들이기에 아쉬움은 없는지 따 본 속좁은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 부끄러웠다. 지방출장을 밥먹듯 하면서도 자가용도 없이 그냥 대중교통이 편하다는 이들의 말을 들었을 때 파악했어야 했는데...

그렇다. 이들은 월급형식으로 받는 급여외에 일체의 수임비와 승소료가 없다. 그 동안 '공감'에서 진행한 소송 건수는 어림잡아도 100여건. 이 중 70% 정도를 승소했으니 승소료만 계산해도 어마어마할 것이다. 물질에 대한 자유로움만큼 '공감'은 세상의 그늘을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도 돈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었다. 얼마 전엔 후원행사를 진행하는 등 재원마련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물론 법률지원사업의 규모는 더 커지고 있고 다양한 기획사업들도 계속 벌이고 있다. 다행히 법무법인 충정 등 일부 로펌에서 법률자문과 재정지원 등 후원을 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일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제는 사무실도 비좁은 듯 했다. 허름한 건물 3층에 입주한 '공감'의 작은 보금자리는 김영수, 소라미, 염형국, 정정훈, 황필규 이렇게 5명의 변호사와 살림꾼인 전영주 씨, 일손을 도와주는 인턴들이 있기에 많이 좁아보였다. 하지만 이들에겐 이곳이 더 없이 포근한 곳이다. 인턴들에겐 미안할 따름이다. 지난해부터 모집한 인턴은 점심식사정도만 지원하고 있는데도 점점 지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공감' 식구들에겐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현실인 부분이다.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행복해 보였다. 너무 바빠서 일주일에 한번 월요일 오후에만 회의 때문에 잠깐 모인다는 '공감'의 멤버들에게선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적은 돈이지만 후원회원이 되기로 한 내 가슴도 어느덧 세상과 '공감' 하고 있는 듯 했다. '공감' 덕분에 '만원의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면 너무 오버인가?

인터뷰를 마친 후 인턴을 하고 있는 한 학생에게 '공감'에 대한 소감을 물어봤다. 인턴의 말은 조금도 보탬이 없는, 과장할 필요조차 없는 사실 그 자체이기 때문에 꾸밈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감’에서 일하길 정말 잘 한 것 같아요. 만족, 만족입니다."

낮은 곳에 임하는 용기로 소외된 희망을 되살리는 '공감', 이들에게는 분명 존재의 메시지가 있었다. "희망을 찾으세요? 그럼 낮은 세상과 공감하세요!"

박지호 기자 hoya@naeil.com

| 서울신문 |

인권변호사는 '변신중'

지난 13일 아침 8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소속 황필규(38) 변호사는 오후에 있을 '난민법 재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앞두고 자료를 한번 더 꼼꼼히 챙겼다. 만반의 준비를 위해서였다. 순간,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자신이 대리한 미얀마인 8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난민지위 불허처분을 취소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항소심 소장을 작성한 지도 꽤 됐으니, 2심 판결이 어떻게 날지 긴장된다.

그런 생각도 잠시, 국회 공청회 활동을 하면서 안면을 터놓았던 사람들을 오후 토론회에서 다시 만난다는 생각이 미치자 웃음이 절로 난다. 그날 토론회는 예상대로 길어졌고, 저녁 늦게 집에 도착했다. 곧바로 난민법 재개정안 정리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새벽 1시 전에 자야만 내일 예정된 난민단체 법률상담을 할 수 있을 텐데"라며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야 했다.

한때 인권변호사들에게 따라붙었던 '시국사건 전담 변호사'란 별명이 이제는 옛말이 돼가고 있다. 시국사건에서 노동·환경·복지·장애인 등 공익성이 강한 분야로 확대하면서 이들의 역할과 위상도 날로 높아가고 있다.

재판부 원편 피고인 대리석에 앉아 법정이 떠나갈 듯 한 기백으로 변론을 하고 끝내 패소 판결을 감내해야 했던 선배 인권변호사들의 모습은 후배들에겐 낯선 풍경이 됐다. 젊은 후배들은 이제 재판부의 왼쪽이 아닌 오른쪽, 즉 재판을 청구하는 원고 자리에 앉는 예가 많다. 노동사건만 맡는 민주노총 법률원도 형사사건을 포함, 피고를 대리하는 사건은 3분의 2정도에 불과하다.

항상 '지는' 변호사라는 꼬리표도 이들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공감의 엄형국 변호사는 "사건의 80~

90%는 공감측에 일부 승소라도 내려진다."고 자신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대법원 판례를 깨고 우리 법률원 의뢰인에게 유리한 하급심 판결도 종종 나온다."고 귀띔했다.

인권변호사들은 역할과 영역을 빠르게 넓혀 왔다. 시민사회의 성장과 함께 부업이 아닌 본업으로 공익활동을 펴는 인권변호사들이 등장했다. 노동·환경 분야 사건만 전문적으로 맡는 법무법인도 등장했다. 1988년 설립된 인권변호사들의 본산 역할을 해온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약간의 정체성 혼돈을 겪으며 활동방향을 잡는 데 주춤하는 동안 생긴 현상이다. 인권변호사 내부의 '파워이동'이 생긴 셈이다.

비영리재단 '공감'...인권변호 영역 선점

민변과 민주노총 법률원이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면, 2003년 12월 탄생한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은 여태껏 볼 수 없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이 곳은 시민단체처럼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따로 사건별 수입료를 받지 않는다. 이곳 변호사들도 전일제로 일을 한다.

3~4년차인 공감 변호사 5명은 연계된 37개 시민단체에서 파견 변호사로 일한다. 직접 또는 시민단체 간부들을 통해 각 단체 법률상담을 해주고, 단체를 통해 사건을 수임한다. 미얀마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이나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국가 상대 배상소송, 학대받는 이주 여성들의 이혼 소송을 대리했다. 필요하면 정책보고서도 만들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손잡고 실태조사에 나선다. 변호사들이 1인시위에 나설 정도로 현장밀착 형으로 유명하다.

공감은 변호사의 공익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올해에는 매년 공감이 맡는 공익소송 10건을 법무법인 총정에서 대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총정은 지금까지 2건의 사건을 맡았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희망을 그리는 사람들 기부자님 이야기

어느 유명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던 한 배우의 수상소감이 생각납니다.

"훌륭한 밥상을 차려주신 많은 스태프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변호사로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훌륭한 밥상을 차려주신 소중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겨울을 있게 만든 따뜻한 선물

사무실로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배달되어 왔습니다.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는 예쁜 트리는 몇 달 전 공감에서 인턴을 했던 친구가 보낸 트리였습니다. "연말에도 야근 많이 하시죠? 함께 밤을 지새울 트리 보내드려요, 정말 작은거라 창피하지만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건강하세요. 공감 파이팅"

공감 사람들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다니신다는 익명의 기부자님

유명 일간지에 공감의 인터뷰가 크게 실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로부터 격려전화를 받았습니니다.

"여보세요"라는 인사말에도 상대방은 아무말이 없었습니다.

한참후 머뭇거리며 "저 같은 사람이 전화 해도 좋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IMF로 실직해서 지금 노숙자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신문에서 봤어요, 저 같은 사람들 위해서 고생 하신다구요.

제가 지금은 돈이 하나도 없어서 기부 할 수 없지만...

이 다음에 돈 벌면 꼭 기부 할꺼예요, 돈 한푼 안 들어있는 지갑이지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신문기사 오려서 넣어뒀어요, 계좌번호도 적어뒀구요.

정말 고마워요, 꼭 약속 할께요."라며 더듬거리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공감이 했던 작은 일들이 마음에 와닿았다는 그 분의 말씀. 언젠가는 꼭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

그 소중한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공감 기부자가 되는 것이 태교의 시작?

아름다운재단에는 매월 한번씩 신규 기부자님을 모시고 재단의 이모저모를 알려드리고 기부에 대한 감사인사를 드리는 '처음자리 마음자리'라는 작은 행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감과 함께하는 기부자 행사에 한 손으로는 불룩한 배를 조심스레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남편의 손을 잡은 임산부가 오셨습니다.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싶었어요.

얼마 안되는 적은 돈이지만 제가 여러분들 활동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네요.

뱃속의 아기에게도 그런 기쁨을 느끼게 해주려고 왔어요, 태교 하려고요"라며 공감 활동이 담긴

어색한 영상물도 보며 해맑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기부자님이 만들어 주신 즐거운 과일파티

냉장고 얼음이 금새 동이 날 정도로 더운 여름의 어느날이었습니다. 자두와 포도 몇 상자가 배달 되어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예쁜 카드도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울산에 사는 송준현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맛있는 과일을 파는 농장이 있거든요. 공감식구들 생각나서 조금 보냈어요. 맛있게 드세요"라는 글씨가 다정하게 적혀있었습니다.

"공감 사무실이죠? 굴 한상자 보냈어요, 항상 건강하시구요, 수고해주세요"

갑작스런 선물에 당황스러워 이름을 여쭙어봐도 "그냥 공감 기부자구요,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들께 마땅히 해드릴것도 없네요. 감기 조심하시구요, 건강하셔야 일도 하실 수 있죠"라며 한사코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부자님도 계셨습니다.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법무법인 총정

'외국에도 공익법활동을 하는 변호사가 있을까!'

'어떻게 활동할까? 어떤 고민을 할까'

공감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앞으로의 공감 활동을 위한 좋은 롤 모델을 찾고 싶은 욕심도 있었습니다.

매년 사업계획을 세울 때마다 "해외공익법연수"를 일정에 넣어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넉넉지 않은 기금사정 때문에 욕심을 부리기 어려웠습니다.

"넓은 세상을 한번 보고 와요, 많이 보고 배워서 더 많은 일을 해내야지"라며 법무법인 총정에서 선뜻 미국공익법연수를 위해 기금지원을 해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산을 알려거든 산 정상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봐야 한다는 소중한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공익단체법률지원에 힘을 불어 넣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신한은행(구 조흥은행)

공감의 활동이 실린 신문기사가 공감과 신한은행(구 조흥은행)의 인연을 만들었습니다. 기사를 보시고 선뜻 나눔을 전하고 싶다면 공감에서 진행되는 "공익단체법률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부 해주셨습니다. 신한은행의 소중한 나눔이 공감 활동을 통해 소외계층에게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공감에 대해 공금했던 몇 가지

Q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2003년 8월 당시 사법연수생이었던 염형국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상근 변호사로 일하고 싶다는 포부로 무작정 참여연대의 박원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박원순 변호사는 평소 미국의 활성화되어 있는 프로보노(pro bono) 활동과 같이 우리사회에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익활동 전담 변호사조직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기에 염변호사에게 아름다운재단 내 '공익변호사팀'을 만들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습니다. 익명의 독지가와 뜻을 함께한 기부자들이 모여 아름다운재단 내 공익변호사기금을 마련하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채를 통해 김영수(33기), 소라미(33기), 정정훈(33기), 황필규(34기), 장서연(35기) 변호사와 전영주, 권희 간사가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Q '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과 '아름다운재단'은 어떤 관계인가요?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아름다운재단이 조성한 '공익변호사기금'을 재정적 기반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변호사 조직입니다. 현재 공감은 조직적으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직속에 위치하는 사업 단위입니다. 따라서 사업 진행 및 사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감 구성원 전원(변호사6인, 간사2인)으로 구성되는 공감전원회의를 거쳐 재단과 상호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Q 사무실 이름인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서 '공익변호사그룹'이란 무엇인가요?

'공익변호사그룹'이란 공익활동에 뜻을 함께하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공익활동만을 전업으로 하여 상근으로 일하는 변호사조직을 뜻합니다. 예전에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은 변호사협회나 시민사회단체 등을 통하여 측면으로 법률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는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로펌에 소속되어 하는 일을 주 업무로 삼으면서 부수적으로 공익활동을 행하였습니다. 반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소속 변호사들은 별도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로펌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오롯이 공익활동에만 전념한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Q 어떻게 '공감'이라 이름 짓게 되었나요?

'공감(共感)'의 사전적 의미는 "일체화(一體化)나 동일화(同一化)와는 다르며, 주위 사람들이나 현상(現象), 즉 공감대상과 자기(공감자)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대상과 자기의 심리적인 동일성을 경험하는 것이다."입니다. 사전적 의미와 같이 공감 구성원은 우리 사회 소수자·사회적 약자를 대등한 주체로서 인식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지향을 가지고 사업과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공감의 '공익(共益)' 활동이 우리 사회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법조인의 '공익법활동'이 보다 활성화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공감'이라 이름 짓게 되었습니다.

Q 공감은 어떻게 재정을 충당하나요?

공감은 아름다운재단 내 형성된 50여개 기금 중 '공익변호사기금'으로부터 사업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변호사기금'이 소멸되지 않고 유지되어야만 공감의 활동은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금 모금 역시 '공감' 구성원이 직접 담당해야 할 몫입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에는 예상하지도 못했던 모금 활동에 당혹스러웠습니다만 현재는 한국사회에 처음 시도되는 공익변호사그룹이 지속가능한 모델로 남아날 수 있도록 하자는 사명감을 가지고 '공감' 구성원 모두가 모금활동에도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공감활동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공감 홈페이지 내 '나눔후원신청'을 클릭하시거나 무통장(하나, 162-910001-07637 예금주/아름다운재단)으로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지원으로 공감은 소수자·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활동에 더욱 힘쓸 수 있을 것입니다.

Q 공감의 '공익변호사기금'에 후원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연말에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영수증의 기부금발행단체는 아름다운재단으로 표기됩니다.) ▶ 매달 온라인으로 공감 뉴스레터를 받아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감의 최근 활동 소식과 우리 사회 인권·복지 현안에 대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연 8회 진행되는 '공감 산행'에 초대되어 공감 구성원들과 함께 세상사는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아름다운재단과 공감에서 진행하는 각종 토론회, 심포지움 및 이벤트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소수자·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감의 활동에 힘도 보태시고 이를 통해 제공되는 소득 공제 혜택 및 다양한 나눔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후원안내

아름다운 나눔은 내가 나눌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비록 한사람의 나눔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작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마음들이 모이면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으로 마련되는 '공익변호사기금'은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변호사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사회 인권의 경계 확장과 적극적 사회변화 위한 공익변호사들의 굳은 결심에 힘을 더해 주십시오.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은 아름다운재단의 '공익변호사기금'을 재정 기반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익변호사기금'은 비영리, 전업으로 공익법 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홈페이지 www.kpil.org (CMS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좌번호 하나은행 162-910001-07637 예금주 :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재단은 기부금지정대상단체로 아름다운재단에 보내주시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연말정산시 비용인정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연말에 1년 동안의 기부액을 합산하여 12월 초에 일괄 우편 발송해드리며, 원하시면 별도로 발행 발송이 가능합니다.

공익변호사기금 기부자님들께는 공감이 발행하는 사업보고서와 자료집 등의 출판물과 온라인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공감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로서 공감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전화 02)3675-7740 **팩스** 02)3675-7742

메일 gonggam@beautifulfund.org

담당자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권희 간사

공감에는 변호사가 '상근' 하고 있나요

네, 현재 공감에는 6명의 변호사가 상근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공감 구성 변호사는 각각 주력 활동 영역에서 관련된 법·제도 개선 활동, 공익소송, 법률자문·상담, 법률교육, 법률매뉴얼 제작, 공익법 연구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익단체가 공감에 법률지원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서는 2007년부터 '희망변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공익단체에 대한 법률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망변론 프로젝트'는 '소송지원'을 넘어서 다양한 '법적 행동'으로 공익단체의 고민과 활동을 풀어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 1회 정기 공모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익단체 법률지원 사업'과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수시신청이 가능한 '찾아가는 법률교육', '함께하는 공익소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권희, 김영수, 소라미, 엄형국, 전영주, 정정훈, 황필규, 장서연

- 권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낮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오늘도 마음 속 푸른 날개를 펼치는 사람들...
그들이 그려가는 희망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 행복합니다.
- 김영수** 처음 노숙인상담소를 찾은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공감에서 4년차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간 함께 한 인연들이 참 소중하고 고맙습니다.
공감에서는 노숙인 법률상담, 장애인에 대한 차별소송, 가정폭력피해자 법률구조, 지역 시민단체들의 주민참여, 예산감시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익제보자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법률지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소라미** 공감과 함께 법조 생활한지 4년이 되어갑니다.
여전히 변호사가 무엇인지, 공감이 무엇을 해야할지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야할 길이 잘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두려울 때마다 함께 하는 동료들이 든든히 지켜주어 '불끈' 힘내서 이 길로 돌아옵니다. 공감이 지속가능한 모델로 남을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이들이 공감의 활동에 공감할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한발 한발 걸어가겠습니다.

엄형국 수많은 사건과 만남과 인연들이 파노라마처럼 뇌리를 스쳐갑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공감에서 무엇을 하는지, 공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등에 관해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계처럼 되뇌었는데 이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를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는 하겠지요. 공감이라는 곳에서 3년, 이제 4년째 공익단체 실무자 분들, 특히 장애인 단체 활동가 분들과 일하면서 어느덧 장애인 분야에서 전문가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감에 와서 가장 큰 배움은 다른 것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였습니다. 나와 다른 피부색·이념·종교·성별·성 정체성 그리고 나와 다르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지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배제하고 주류만을 위한 사회를 만들어간다면 결국 소수만을 위한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익변호사의 길을 택하여 어렵고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즐겁고 행복합니다. 내가 가진 법률지식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살만한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이, 일을 통해 너무도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일을 보다 많은 선후배·동기 법조인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전영주 물이 흐르다 구덩이를 만나면 그 구덩이를 다 채운 다음에 앞으로 흐릅니다.
가야하는 그 길이 멀고 험해도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건너 뛸 수도 없는 것이지요.
바다로 가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정정훈 서른여덟의 나이 만큼에 어울리는 경험과 언어와 웃음을 갖추었는지...
'구체적인 현실의 질감을 따라가는 실천을 하고 싶다' '평생 즐겁게 공부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나를 '지금 여기'에 있게 한 수 많은 因緣들이 고맙다.

황필규 어떠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도 "시기상조"가 아닌 경우가 없고 항상 "법을 뛰어넘는 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법률가집단인 공감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공감은 종종 "단순한" 혹은 "정치적"이라는 평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감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단순하고 평범한 진리를 추구하고 꾸준히 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변화의 가능성을 찾으려 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그들이 원래 약할 수밖에 없고 소수일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기에.

그리고...
2007년 3월부터 공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줄 또 한 사람

장서연 공감 구성원들의 눈부신 미소를 보고 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무관심과 차별 속에서 소수라는 이유로 비정상적으로 치부되는 삶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가 제가 있어야 할 자리이고 함께 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행복해지기" "희망 가지기" 올해 제 화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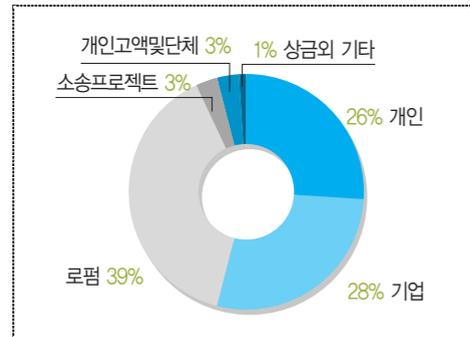


● 2006년 공익변호사 기금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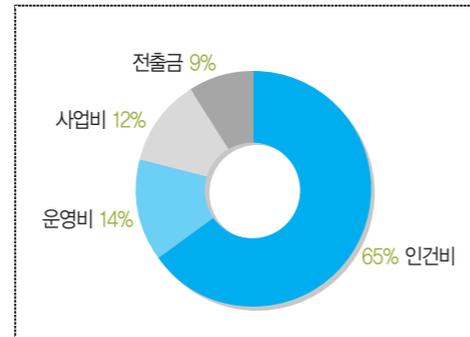
(단위 원)

수 입		지 출	
개 인	138,165,649	인건비	190,814,755
기 업	150,000,000	운영비	41,213,674
로 폼	206,000,000	사업비	34,313,870
소송·프로젝트 지원	17,844,016	전출금	26,730,010
개인고액 및 단체	16,770,600		
상금외 기타	6,000,000		
기금 수입 총계	534,780,265	기금 지출 총계	293,072,309

● 2006 기금수입



● 2006 기금지출



● 전체 지출 예산 기준 개인기부자 기금이 차지하는 비율(CMS기부+일시기부)

2004년 7% → 2005년 14% → 2006년 47%

